“고객 니즈에 선제 대응”…케이뱅크 승부수

‘케이뱅크 2.0’ 시동…제2도전 선언

연말까지 2500억원 추가 증자 실탄확보
방카슈랑스·아파트담보대출 등 사업확대
프라이빗뱅킹처럼 개인 특화 서비스 강화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이 케이뱅크의 성과와 미래 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 | 케이뱅크

금융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가 카카오뱅크의 거센 도전에 맞서 ‘나를 알아주는 은행’을 내세운 ‘케이뱅크 2.0’으로 승부수를 던졌다.

27일 서울 종로구 케이뱅크 본사에서 열린 ‘중장기 경영전략 및 사업계획’ 설명회에서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은 “‘뱅크 온디맨드’(BankOnDemand) 모델을 차기 목표로 발표한다”며 “수요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로 소비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고객 니즈를 선제적으로 먼저 파악해 개인별로 특화된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추가증자를 통해 방카슈랑스, 아파트담보대출까지 사업영역 확대를 선언했다.

아파트담보대출의 경우 100% 비대면 서비스인 케이뱅크 앱을 특성을 살려 사진촬영 및 스크래핑 등으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복잡한 금리우대 조건을 없애고 주말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케이뱅크 측은 “은행권 최초로 완전한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판매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다만 처음부터 시중은행 수준으로 완벽하게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운영할 수 없어 단계적으로 상품을 고도화할 것”이라고 했다.

방카슈랑스도 별도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없이 서비스하며 저가형 보장형 상품, 환급률이 높은 저축보험 상품 등 다양한 상품군을 운영할 계획이다. 케이뱅크는 “가격이 저렴하고 가입 속도와 편의성이 좋으며 모바일 편의성을 갖춘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며 “보험사와의 연계도 고려해 상품 판매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7월 중단했던 ‘직장인K 신용대출’도 추석 연휴 이후 상품 판매를 재개한다.

특히 사업영역의 확장을 위해 이달 말까지 우선 1000억원을 증자하고 연말까지는 약 1500억원을 추가로 증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심 행장은 “은산분리 법안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기존 주주들과 계속 추가증자를 논의하고 있다”며 “1000억원 증자를 진행하며 예비조사를 해보니 케이뱅크 참여에 관심을 보이는 투자자가 많았다”고 했다.

심 행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의 후발주자인 카카오뱅크에 대해 “카카오가 가진 브랜드 파워를 따라가기 어려운 만큼, 고객 한 분 한 분에 집중하는 프라이빗 뱅킹처럼 개인화된 서비스로 승부할 것”이라며 “향후 급변하는 정보통신 환경을 유연하게 받아들이며 혜택의 대상을 극대화하고 더 편한 금융 환경을 시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연휴 때 은행 갈 일 있으면 어떡하지?

자동입출금기, 지폐교환 이동식 점포 가동
해외여행 고객 겨냥 환전 우대 이벤트
긴 연휴 영향 실적감소 우려 특판상품 출시

신한은행 ‘강추 골든위크 환전이벤트’(왼쪽)와 우리은행의 이동점포 ‘위버스’. 최장 10일 간 이어지는 황금연휴를 맞아 은행권이 이동점포, 환전 이벤트, 특판 경쟁 등으로 분주하다. 사진제공 | 신한은행·우리은행

황금연휴를 맞은 은행권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최장 10일 간 이어지는 황금연휴가 이동점포 가동, 환전 이벤트, 특판 경쟁 등 기존과는 다른 분위기를 야기시켰다.

●이동점포 전국 휴게소에서 운영

은행권은 30일부터 10월9일까지 대부분 점포가 쉰다. 이에 귀성객이나 여행객 편의를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등 교통 거점에서 버스형 이동식 점포를 운영한다. 현금자동입출금기 이용과 구권 지폐를 신권으로 바꿀 수도 있다.

농협은행은 10월2일 경부고속도로 망향휴게소(부산 방향)와 중부고속도로 하남 드림 휴게소(통영 방향)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하고, 우리은행은 10월2일과 3일 영동고속도로 여주휴게소와 평택시흥고속도로 송산포휴게소에서 이동점포 ‘위버스’를 운영한다. 대형버스를 개조해 자동화기기, 자체 발전설비 및 위성 송·수신 장비 등 최첨단 장비를 갖춘 특수 차량이다.

기업은행과 국민은행도 29일과 30일 각각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행담도휴게소와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기흥휴게소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해외여행 고객 노린 환전 이벤트도 한창

연휴 기간 해외여행을 떠나는 고객이 늘면서 환전 이벤트도 경쟁적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10월13일까지 위비톡을 통해 환전하면 주요통화(달러화, 엔화, 유로화)는 90%, 기타 통화는 50%까지 환전수수료를 할인해 준다. 신한은행은 10월15일까지 써니뱅크, S뱅크를 통해 환전하는 고객에게 최고 90%까지 환율 우대를 제공한다.

●금리우대, 금융바우처…특판상품 경쟁

우리은행은 10월13일까지 정기예금 가입고객에게 연 1.7%의 특별 금리를 제공한다. 또 신한은행은 10월31일까지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를 위한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금융바우처와 경품을 주는 ‘아이행복 선물상자’ 이벤트를 연다.

은행권이 추석연휴에 금리를 높이거나 각종 경품을 걸어 예·적금 고객유치에 적극 나서는 것은 연휴로 인해 10월 영업일수가 크게 줄어들면서 실적 감소에 대한 우려 있기 때문이다. 추석상여금 등 시중에 돈이 대거 풀릴 조짐을 보여 회수차원에서 예금 특판상품 출시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정정욱 기자

CJ 이재현 회장 ‘온리원캠프’ 참석

인재제일주의 경영 강조

CJ 이재현 회장(사진·오른쪽에서 두번째)이 26일 제주도 나인브릿지에서 열린 주니어 사원 대상 교육행사인 CJ 온리원캠프에 참석했다. ‘온리원캠프’는 CJ 그룹공채 2~3년차 사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결합(Re-Union) 프로그램이다. 입사 이후 각 사로 흩어졌던 동기들이 3박4일 일정을 함께 하며 재충전 및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다.

이재현 회장은 매년 행사에 참석하다 2013년 이후 참석하지 못했다. 올해는 2015년 CJ 그룹공채 입사자 750명을 대상으로 이재현 회장을 비롯해 CJ㈜ 이채욱 부회장, CJ대한통운 박근태 사장 등 전 계열사 CEO가 함께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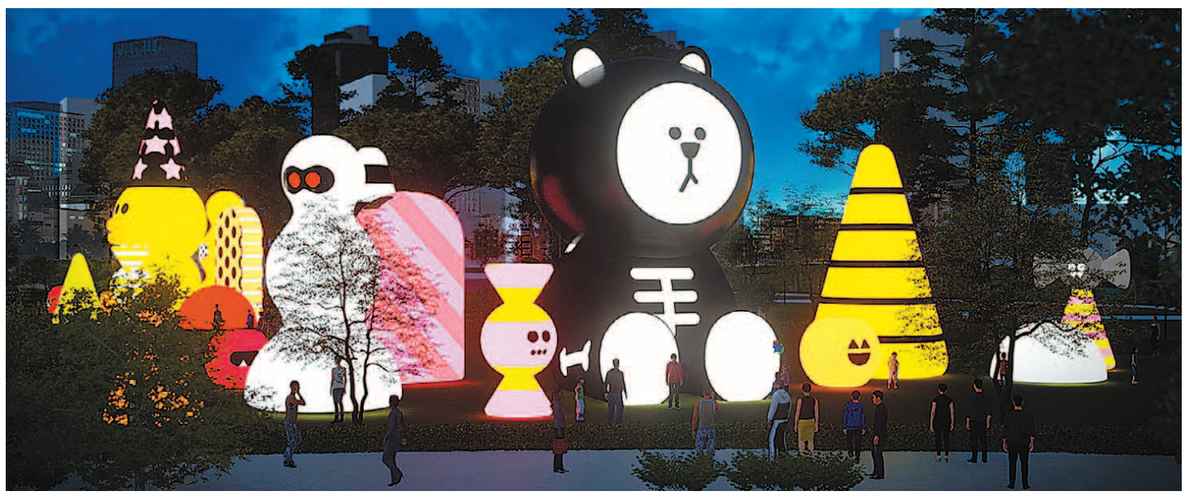
이 자리에서 이 회장은 “좋은 인재가 즐겁게 일하고 최고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유연하고 소통이 잘 되는 조직문화가 필수”라며 함께한 그룹 경영진들에게 이 같은 조직문화 형성에 각별히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재현 회장은 5월 CJ블로썸파크 개관식에 참석한 이후 7월 CJ CGV 용산 개관식, 8월 CJ 온리원페어 시상식 등에 참석하며 현장 경영을 펼치고 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경제현장.jpg

롯데월드타워 방문한 ‘라인프렌즈’, 할로윈에 물들다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는 할로윈을 맞아 10월3일부터 31일까지 ‘안녕! 라인프렌즈 X 크랙 앤 칼’ 전시를 진행한다. 글로벌 캐릭터 브랜드 ‘라인프렌즈’와 팝 아티스트 듀오 ‘크랙 앤 칼’(CRAIG & KARL)이 협업한 프로젝트로 라인프렌즈를 모델로 만든 22기의 대형 아트벌룬을 월드파크 잔디광장에 설치한다. 광장을 둘러싼 롯데월드몰 외벽에는 대형 캐릭터들이 랩핑되어 거대한 할로윈 타운을 만들 예정이다. 특히 캐릭터 중에 가장 인기 있는 브라운과 샐리는 12m 높이의 초대형 아트벌룬 작품으로 공개한다. 뉴욕과 런던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아티스트 듀오인 크랙 앤 칼은 구글, 애플, 키엘 등 다국적 기업과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한 바 있다. 전시는 오전10시부터 오후10시까지 진행하며 오후6시부터는 야간조명이 작품들을 비춰, 할로윈의 분위기를 더욱 살릴 예정이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사진제공 | 롯데물산

지난 5년간 1인당 1.4건 개인정보 유출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개인정보 누출 누적 인원은 7200만여 명에 달했다. 국민 1인당 1.4건씩 유출된 셈이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부의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년 간 신고가 접수된 117건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 원인을 살펴보면 해킹이 70건으로 무려 60%를 차지했다. 특히 몇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조차 알 수 없는 ‘확인불가’가 27%를 차지해 이를 고려하면 개인정보유출 인원은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은 “4차산업시대는 기술의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가 함께 이뤄져야 비로소 성공적일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LG전자 6000억 투자, 스마트공장 짓는다

LG전자가 2022년까지 6000억원을 투입, 경남 창원1사업장을 친환경 스마트공장으로 새롭게 만든다. LG전자는 이를 위해 27일 경상남도, 창원시와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2023년 초 완공 예정으로 냉장고와 오븐, 정수기, 식기세척기 등 주방가전 생산을 맡는다. 창원1사업장은 1970년대에 조성한 창원국가산업단지에 있다. 산업단지 내 사업장이 스마트공장으로 재건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창원 신공장은 대지면적 25만6324m²(약7만7000평)에 연면적 33만6000m²(약10만1000평) 규모다.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적용한 최첨단 생산시스템을 갖춘 ‘지능형 자율 공장’으로 글로벌 시장의 다양한 수요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LG전자 측 설명이다. 현대 창원1사업장 연간 생산능력은 최대 200만대다. LG전자는 스마트공장으로 거듭나면 300만대 이상으로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LG전자는 창원 1·2사업장에 매년 250명 이상 신규 인력을 고용할 계획도 밝혔다.

김명근 기자

한 눈으로 보는 경제

27일

코스피지수	2372.57	▼	-1.75
코스닥지수	649.24	▲	+6.84
日 닛케이 지수	2만267.05	▼	-63.14
中 상하이 종합	3345.27	▲	+1.69
국고채 금리 (3년물, 연%)	1.89	▲	+5.5
환율 (원 · 달러)	1140.70	▲	+1.60
국내금값 (원/그램 g)	4만7426.24	▼	-343.13

오늘의 얼굴

폭스바겐, 슈테판 크랩 신임 사장 선임

폭스바겐코리아의 신임 사장 슈테판 크랩(사진)이 10월 1일자로 공식 부임한다. 크랩 신임 사장은 2002년 폭스바겐 컨설팅을 시작으로 폭스바겐 그룹과 인연을 맺은 이후 세일즈, 마케팅 등을 두루 거쳤으며,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지역 전문가다. 특히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폭스바겐 브랜드 프리세일즈 및 마케팅 총괄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한국 시장에서 폭스바겐 브랜드의 성장에 기여했다.

슈테판 크랩 신임 사장은 “한국은 전세계 자동차 시장을 선도하는 국가 중 하나로, 폭스바겐에게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시장”이라며 ″고객 및 대중들의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폭스바겐코리아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 TALK TALK

●“홈쇼핑업계가 불공정한 관행을 근절하고 상생협력이 정착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27일 홈쇼핑산업 발전 및 상생협력을 위한 간담에서 협력과 지원은 아끼지 않겠지만 불공정 관행부터 시정하라며)

●“새 공장 자동화해도 생산량 증가로 고용 늘 것”(송대현 LG전자 사장, 27일 ‘산업통상자원부-휴대폰·가전업계 간담회’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스마트 공장으로 고용이 줄어들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생산도 증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고용 인력이 늘 것이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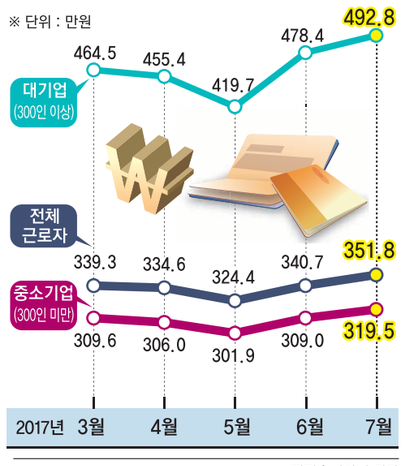
데이터 경제

근로자 평균임금 351만원…임금 격차 축소

2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7년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7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51만8000원으로 전년동월 341만5000원보다 3.0%(10만3000원) 증가했다.

사업체 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규모 기업의 임금 증가폭이 대규모 기업보다 컸다. 상용 300인이상 대규모기업 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492만8000으로 전년동월 482만6000원에 비해 2.1% 늘었다. 상용 5~300인 미만 중소규모기업 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19만5000원으로 전년동월(307만3000원)에 비해 4.0% 증가했다.

대규모와 중소규모 기업간 평균 임금격차는 지난해 7월 175만3000원에서 올해 7월 173만3000원으로 소폭 축소됐다.



편집 | 신하늬 기자